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1-1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아리조나의 모니카 리 선교사님

2021년부터 우리교회가 임태일 선교사님에 이어 후원하게될 모니카 리 선교사님은 아리조나 주에 있는 생수교회(LWMC Living Water Methodist Church)를 17년여 넘게 섬기신 평신도 선교사이십니다. 생수교회가 있는 윈슬로는 호피 마을에서 약 한시간 떨어져 있고, 나바호족, 호피족, 멕시코, 흑인, 중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혼재하는 인구 약 이만명의 마을입니다. 73년이나 된 교회건물은 올해도 누수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귀한 예배처소입니다. 4월에는 모니카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한달여를 고생하셨지만, 회복 후에는 코비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바호 족을 돌보셨습니다. 한 기업체와 주변교회들의 도네이션으로 지금까지 총 96,000 장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거울자켓등을 풍성히 나누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생수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나눕니다.

생수 교회의 비전과 목적

이 곳의 어린 아이들 가정을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높은 이혼율과 싱글맘/ 싱글대디의 교육관이 그리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존감이 무척 낮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열망도 없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건 바로 마약, 알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교육으로 인한 14 세에서 16 세의 소녀들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저희 생수 교회의 비전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향해 돕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것이 저희 생수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년도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감비아	한병희 선교사	아리조나	모니카 리 선교사
니카라과	박우석 선교사	필리핀	김대영 선교사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선교사	CCC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선교사
스리랑카	정은범 선교사	ᄃ국	장수영 & 장은실 선교사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1-1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호피 임태일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

지난 2008 년 2 월에 시작했던 미국 애리조나 호피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했던 저와 제 가족이,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 지방에 있는 서강감리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고백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지난 만 12 년의 호피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부족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지만, 무한한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이제 떠날 때가 되니, 좀 더 성심을 다했어야 했는데, 싶은 일들만 떠오릅니다.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12 년 전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던 제가, 좀 더 선명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는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호피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고된 노동의 시간을 통해 몸으로 배운 것이며, 함께 울고 깔깔대며 웃었던 마음으로 빚어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뻘쭙하고 아둔한 사람을 이만큼 사랑해 주었던 호피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스승들이었음을 이제사 조금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길에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역시도 매우 궁금합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12 년 전에 이 땅 호피로 건너 올 때 주셨던 설렘을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미지의 땅으로 떠나야 하기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궁극적 의미가 있을 뿐”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렘을 품고 이 땅에 무모하리만치 성령 들어서서 이만큼 인도하심으로 젖어 지낼 수 있었던 시간이 더욱 더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간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과 교회에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덮어주셨고, 오직 사랑의 눈으로만 부족한 사람을 헤아려 주셨던 것 압니다. 새로 부여받은 사역지에서 이 땅에서 받은 사랑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낮으로 언제나 다시 뵈 것을 희망합니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임태일 선교사 올림

필리핀 김대영 선교사님 근황 보고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 년 동안 선교지에서 생활하던 저희 가족은 캄보디아 파송 예배로 잠시 귀국했다가 코로나로 발목이 잡혀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6 개월째 선교지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더운 동남아에서 생활을 하다가 겨울나기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투터운 옷도 없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 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수미 선교사는 복지센터에서 주선해 준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급식을 돕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 활동이지만 식사비와 교통비가 지급되기에 작은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 하은이도 코로나 19 로 대학 진학을 일단 보류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략>

많은 교회가 재정을 줄이고 특히 선교사 후원을 많이 줄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캄보디아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저희로서는 캄보디아 선교가 막힌다면 다시 필리핀 항공길이 열리면 먼저 사역했던 선교지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혹 다른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면 역시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 같은 일들로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정유성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 건강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샬롬~~^^